

-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출입관법』 절대 용서할수없다

▶ 관련기사 3면에 ◀ —기독교 국제 연대회의 주체로 집회 데모—



6월 22일 오후 3시부터大阪扇町公園公원에서『기독교 국제회의』주체로 출입국 관리법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近畿지구의 각교회 신도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등의 대표를 그리고 민단 한청 한학동들 약1000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거행했다. 4시 30분경에 집회가 끝나 비모행진에 나섰다 찬송가를 부르며『입관법 절대 반대』라는 스프레이를 소리치며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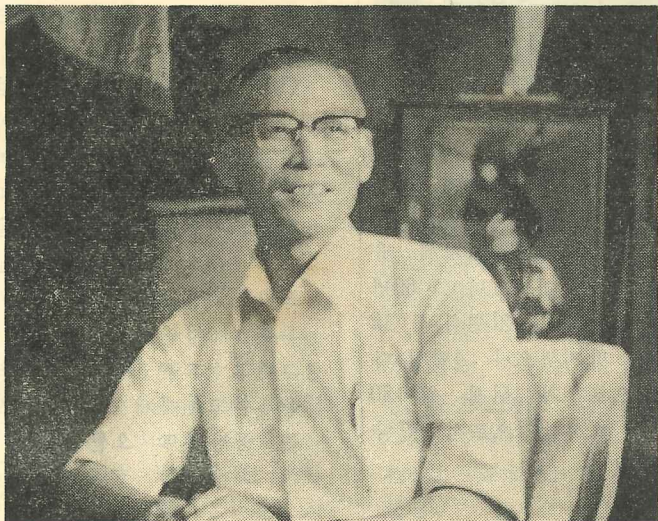
—사진설명—

- ◎위 원편은 반대집회 풍경 ◎우편은 집회때 간절히 기도하는 신도 ◎밑에는 시위행진

신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3)



“주를 떠나서는 평화가 없어”

大阪 김 경 추 집사

이달은 大阪교회의 김경추 집사님을 찾아갔다. 그리 연세도 들지 않았는데 머리에 은빛색이 나옴을 어딘지 고생을 많이 해오신것 같이 보였다. 김집사 댁에서는 할아버지 시대부터 계속 3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한다.

27년전 가족을 고국에 두고 혼자 일본에 나왔다. 이때까지 교회바깥의 향락 생활을 몰랐기에 거기에 호기심이 일어나 교회를 떠

나 타락의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잠시동안 그것이 즐겁게 보였으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심적 평화를 얻을수 없어 약 일년후 다시 교회생활에 들어왔다. 이때 비로서 전보다 더욱 강한 신앙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온천여행을 경영하게 됐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가 도회지의 잡음을 피하고 가끔 조용한 곳에서 예수와 대면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싶어서 라

고 한다. 그래서 해트스트 롱 코오나홀에 성경을 비롯하여 기독교 서적을 자유로히 읽을수 있게끔 노력있다 한다.

「직원에 기독교 신자가 많아지고 또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볼수있게끔 마련하고 근처의 일본사람들도 함께 예배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 후손에 남기는 유산은 물질적인 것보다 크리스찬 생활이라는 훌륭한 재산을 남긴다 한다. 더욱더 활력이 있기를 바란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5명 딸1명 모두7인 이다.

(인)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2 ~

란 섬 목 사

▶ 세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게 앞으로 나가라고 부르 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위협이 나 악함에서 도피하라고 두 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안으로 들어오게 할 려고 하면서 다 보냈습니 다 우리는 각사람이 서로 신실한 인간으로서 교회로 부터 세상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말하 자면 자유와 사랑과 진실 함과 도와줌과 즐거움을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안에서 이 와같은 일들을 볼때에 우리 가 그들을 초청하지 아 니 할지라도 교회로 오게 될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게되면 우리에게 물 을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법이나 규칙에 모 두 매이는 작은 클럽이되 여서는 안될것 입니다 당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자유라고 말 하지 못할것입니다

大阪에 있는 교회는 자 부심과 자기만 의롭다는것 으로 다른사람들에게서 분 리된 배타적인 조그마한무 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 다 제일대한국교회회는 일 본사회에서 제외를당한 한 국인의 조그마한 배타적인 무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입 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방 법으로 일본사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大阪에서한 국인들은 불량소년들의 많 은 폭력단의 두령이라는말 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일 본의 수많은 중심지에서 수 많은 매춘부의 조종을 한 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국 인이 일본의 온나라에서 과 정교업자고 합니다 그렇다 면 왜!! 한국인이 일본인 사회의 구축적 사업으로 들 어갈수 없겠습니까 구축의 일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 은 구체적 방법으로 하나 님의 사랑을 증거할 목 적 을 가지고 구원할일을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 여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 능력으로 사회변혁을증 명할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 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이 이러한 세대를 위하여 사는것인지 알지못하고 있 습니다 그들은 이 놀랄만 한 세상을 마치 큰 양과 자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위 하여 크고 큰 조각으 로 끊으려고 합니다 우 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 람을 위하여 만족하다고가 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모든것을 말아 주판하 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따라 오는 사람들을 보존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들이 타인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볼때 저희들이 정 말로 무슨 다른것을 위하 여 서 있다고 하는것을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자 신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 력에 대하여 좀더 알고저 원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하 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기를『복음 자신이 사회에 만날수 있는 생활의 십자 로(네거리)에 나아 가거라 거기에서 너희 믿음이 실 시될것이다 거기에서 복음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 기서 너희가 세상안에서 살 고 일하는 거기서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산 증 거를 만들것이다』고 하나 님은 이 새시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라고 부르십니다

▶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 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 아갈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를 뒤로 버리지 아니하였 는가 한것을 발견할것입니 다 그는 교회안에 머물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는 벌써 우리에게 앞서서세 상에 나아가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 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하

리라』하실것 입니다 이것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를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배우지 말고 다 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아 갈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배할수 있도록 배움시다 우리는 사람들 중에 복음 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여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생 활이 변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사 람으로서 사회변혁의 새로 운 방법을 발견합시다『나 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 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하 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 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그들은 두사람 다

약하고 죄악깊은 사람이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당신의 계획중에서 그 들을 사용하실수 있었습니 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 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신들을 마진 까닭입니다

베드로는 교만 하였지만 겸손하여졌습니 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 을 위하여 보여주게 되었 습니다

안드레는 정숙한 사람이 었습니 다 그러나 용기있게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 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 힐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사람 다 생명을사 랑 하였습니 다 그리하여그 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뜻 을 주고저 하시는 하나님

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 하여 순교라는 죽음으로바 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예 수님이 좋아하시는것이 무 엇인가 한것을 보여주기위 하여 재산을 잃는 일을취 하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여 러사람들을 위하여 어렵고 아픈 고난을 즐거워 하였 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 여 용서하기를 즐거워합니 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연고로 사회변혁을 위하여 죽는일도 즐거워 하였습니 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 른다고 하는뜻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다교회)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14)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16) 이제 그리스도는 율 법을 넘어서 무엇인가 새 것을 능력으로 시작하고있 다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 에서 한새사람을 지어 화

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로 이들을 헌물로 하나 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 이라 원수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1:20, 22) 그리스도의 사명은 유대인 에게서 한사람을 만들기위 하여 그생명에서 영과 사 랑을 창조함에 있고 이방 인에게서 한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르고 지배하는 데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 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안에서 새사람으로서 이 스라엘과 이방인사이에 평 화가 있는것 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님과 화목케되며 모든 구 별과 적대관계가 소멸되었 다 또 두민족사이에 적의 가 소멸하고 그리스도의십 자가로 둘이 같이 하나님 의 자녀의 신분을얻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7) ≒또 오셔서 먼데있 는 너희에게와 가까운데있 는 자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8) 그것은 저로 말미암 아 우리들이 한영으로 아 버지께 나아감을 얻게하려 함이다≒ (3:12, 롬5:2) 그 리스도께서 죽음에 그몸을 내어 줌으로 우리를 떠났 으나 부활하신 날에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후 사도들에게와 온 신도들에게 보이지 않 는 동반자로 오신다

(새) (짝)
() ()

下関
교회

백
의
유
치
원



下関교회는 ≒白衣유치원≒ 이 병설되어 있다 이곳에 서는 유아시대 부터 기독 교신앙과 민족정신을 가지 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것 이다

1967년 4월 10일부터 유 아24명으로서 시작하여 다 음과 같은 발전을 보게되 었다

68년 3월 제1회 졸업

생 8명을 보내고 68년4월 에 제2회 입학식에 32명 의 유아를 마지했다 66년 3월에 제2회 졸업식에 유 아12명을 내보냈다 69년 4월에 제3회 입학식에 12 명을 마지했으나 4명이 다 른곳으로 가 현재 원아30 명에 교사 3명으로서 활약 하고있다

入管法、反対決起大会す！

キリスト者連帯会議

▶~~~~去る 6月22日、大阪扇町公園にて、出入国管理法反対キリスト者~~~~
~~~~国際連帯会議主催のもとに、出入国管理法反対決起大会が関西の~~~~  
~~~~韓国教会をはじめ日本の諸教会、宣教師など1000余名が参集して開~~~~  
~~~~催された。前日の雨で予定されていたよりも参加者が少いではな~~~~  
~~~~いかという心配は克服されたようだ。~~~~~▶

午後 3時 5分、裴琪煥牧師の司会のもとに開会された。韓日両語で讃美歌斉唱、石田正弘牧師の祈り、妹尾活夫牧師の挨拶で「日本人の手で起草されている非人道的法案に対して日本人みずから戦わねばならない」と述べ、つづいて俞錫濬長老の講演で「小鳥一匹の値打ちのない在日韓国人の待遇を立法化しようとする入管法断固粉碎しよう」と力説した。このあと米国宣教師代表としてルイス・グリア宣教師は「人権の擁護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日本代表の桑原重夫牧師は「基本的人権の要求という闘争を通して新しい連帯を強化し人権を勝ち取ろう」そして韓国民団大阪本部団長金晋根氏の熱気あふれるメッセージのあと、世界人権宣言を無視し、非人道的出入国管理法が撤回されるまで、闘争することを確約する決議文が田永福牧師に朗読され万場一致で採択された。次いで陳情団（俞錫濬、裴琪煥・桑原重夫・崔忠植氏）を発表し、中路鳴雄牧師の献金アツピールを感謝祈禱崔忠植 講道師によって大会



開催に至る経過報告のあと牧師、宣教師団を先頭にデモに移り、大阪扇町公園→南扇町→梅ヶ枝→梅田新道→桜橋→中央郵便局前までの約2キロのデモコースを「出入国管理法反対！」「非人道的入管法案絶対反対！」「我々キリスト者は最後まで戦うぞ！」「貧乏人追放の入管法案断固粉碎！」などのプラカードと力強いシュプレヒコールを繰り返えし整然とデモ行進を展開した。最後に官憲の流れ解散の要請はあったが俞長老、妹尾牧師の挨拶の後、シュプレヒコールを行い拍手をもって今後の斗争を約して解散した。

それで、宣教によってわれわれはただわれわれが知っているような教会の拡張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それは拡張と同様、深みにおける伝道をも意味するのである。今日の青年は教会が何のために存在

し、人々や社会にいかなる変化をもたらすかということをお問わないで、ただ堅固な建物を建てることに、その活動力を向けている故に、教会に対してがまんが出来ないでいる。これは宣教のためというより残存のための計画である。しかし、教会の生命のおきては、「一粒の麦が地に落ちて死ななければそれはただ一粒のままである。（ヨハネ12:24）」

ただ新しい教会員が連れて来られたり新しい教会堂が建つことによって成功を求めることは奉仕と受難のキリストの道を否定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宣教よりもっと重要だと思い込む残存物を、十字架の道よりもっと重要な自己満足、作り出すのであるそれは仕えるために来られ、彼の生命を多くの者のためあがないとして奉げたわれわれの主を見捨てることになる。

これは皆様が守らねばならない。来る十年間の発展のためのすぐれたプログラムにおける真の危険信号である。回答は何か？≡他者のための教会≡を發展させることである。そしてこれは私の第二の講演の主題でもある。

— 女性シリーズ —

婦 人 活 動

今日の社会相の中で、目立って来たのが、女性活動である。一時の女性解放と言う、転換期的な時代活動から、今日に於ては、女性の場に、ゆるぎない位置づけをもった女性が、本質的な女性自体の形成、育成に、方向づけられた活動となって来ている。女性とは？と言う問いかけから、女性へ……と向う真実な指向に、目を転じて行くようになって、家庭、社会と言う、制約を越えた、真実の女性を考えるようになって来た。より良い女性となることがより幸福な女性となることである女性を認めよと言う主張から自分も女性となろうと言う、反省と、強い願いと、ひたむきな努力に向って来ているようである。それが、最も端的に、平面的に、現われて来たのが、女性向上と言う、平凡な表現でくりひろげられている、地道な婦人活動である。その一つは 1、教養を身につけようと言う動きが非常に強くなって来た。一応男性より教養の低いものと考えられて来たのに対する女性の反駁

と言うことでなく「教養のない女性」と言うことに対する自らの空しさから、何とかして、人間らしい教養を持ちたいと言う切実さからのものである。婦人講座、文化講座、教養講座、読書会、研究会、等々であって、韓国本国に於て、近頃、非常に盛んになった、教養熱が、こうしたものを巷間で多く見受けられ、小さなグループ活動として、町

内で、教会内で、行われている。有閑マダム的な活動としてだけでなく、相当忙しい、経済的にも豊かでない婦人たちが、今日一日の生活の充実と言う考えから、進んで、こうしたグループ活動をやっている。それはまた、ひそかに韓国女性の向上と言うことを自分の責任のように考えての心の動きでもあるようであるもう一つは 2、生活の向上と言うことである。生活の中心を、衣食住と考え、その担当を女性の責任として担うとするとところからより生活を豊かにしようと言う非常に強い意欲をもって、生活学校と言うものを、いろんなところで開いている。「何々講座」「生活学校」と言う形で、ひらかれている、そうした婦人活動は、今日の社会に於て、女性の位置を最も、確固にし、深いものとし、そして価値高いものとしているのである。在日韓国教会に於ての、婦人活動も伝道と言う本質的な使命と共に、社会責任として、こうした、婦人活動を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国に於ける教会の、生活学校は、大体週四日夜毎に開いている。礼拝に始まり、教養学課として家庭教育、国語、国史、聖書研究、幼児教育、文化講座として、韓服、洋服、料理、園芸、生花、音楽、編物、刺繍室内装飾、生活理念、育児法等で、多くの専門講師を招いて、楽しく、意欲的に勉強している。大抵三ヶ月位であるこれが、最も地道な、女性活動であり、民族を富ませ、国を盛んにする、宝玉のような貴い活動であると言えるであろう。今日我々の教会が、こうしたことを見落して、社会奉仕の場としての教会を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はない

（京都教会 田永福牧師）

三今日の世界における教会の宣教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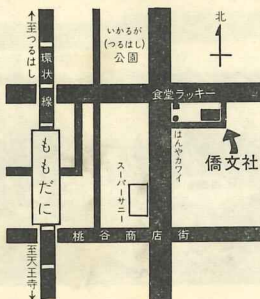
講演 1、教会の宣教についての聖書的根拠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

(3)キリストの宣教の目的は新しい人間性を創造し、人間が全き人間となるよう努力することである。ニーメラーは言った。「キリスト教の真の課題は人々にいかにして真の人間であるべきかを示すことである」。ボニノは言った、「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は、特別、具体的な日々のニードにおける人間に、関心をもつことである。教会は人間のニードのあるところどこでもそれに出合うよう努力するのである。このようにあらゆる種類の奉仕は王国のしるしである教会は医療、学校運営、あるいは幼稚園を開くことを、人

々を回心させたり福音を受け入れるためにするのではないこれらの仕事をわれわれの心が神の愛で満ちあふれる故にするのである。これらは人々に対する彼の愛の表現であるこれらは人々のためになされねばならない奉仕である。(4)キリストにあるすべてのものを総括することは、自然全体の贖罪を意味する。つまり自然万物を神との個有の関係へと回復するのである。キリスト者は、このように人を変え、社会を変革しつつ、歴史において神とのパートナーとあるよう要求されているのである。

新しい社屋で営業をしております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大阪 716-5046番



聖 書

み言葉をたくわえよう

詩篇 119:9~16

1、山登りやキャンプに行く時には電池を用意していく。それはコードがなくても電気が既に蓄えられているから、すぐ、電気がともされ暗い所を明るくすることが出来る。このように私たちの日常の信仰生活においても神の言を心の中に蓄えておかねばならない。(エペソ4:21) その方法としては毎日祈りをし、聖書を読み、主日の礼拝に出席することである。(ルカ21:38) 神の言葉を蓄えるということは信仰生活のエネルギーを保持することである。(行10:1~3) 詩人は、「若い人はどうしておのが道を清く保つ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み言葉に従って、そして罪を犯さないように、心の内にみ言葉をたくわえました」とうたったのです。神に従い罪から遠ざかった生活をするにはどうしてもこの主の言を常に心の中に思っているべきであります(詩1:2)

2、心の中に神のみ言葉をたくわえることは私たちに悪魔との闘いにも勝利を得しめるのである。40日間も断食をして荒野で試みられた主に向かって悪魔は、石をもってパンになるようにしてみなさいと試みるものが誘惑した時に、主イエスは「人はパンだけで生きるのではなくて神の口から出る一つ一つの言葉で生きるものである」と反駁して撃退させたのである。(マタイ4:4) これは申命記8:3にある言葉である。また主は十字架上で最後の七言の中でも特に私たちの胸をうつあの「わが神どうして私をお見捨てになったのですか」というみ言である(マルコ15:34) あれば詩

篇22の1節にある言葉である。主は常に神の言葉を心にたくわえて最も適切な時に、慰めと希望を与えられるのである。

3、最初の殉教者ステパノも旧約の歴史を憶えアブラハムからダビデに至るまでの神の経綸を語り最後に石に打たれて死ぬ時にも主イエスと同じように「主どうぞこの罪を彼らに負わせないで下さい」と祈ったのである(行伝7章) これは彼の心の中に主の言がたくわえられ聖霊の働きによって神の奉仕者としての働き

ができたのである。私たちも神の言葉をたくわえて主のおきてを喜び、主の道に目をとめて主に従う者にふさわしい生活をしたいものである(第1ペテロ3:15)。そのようにして迫害がおこってもどうしようかと心配することなく神の言をもって答えることができる(マタイ10:19)。日常の生活においても機敏な神の智慧を反映できるし、罪から救われて清く生きるのである。

(コロサイ4:6~7)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子 供 た ち と 私

名古屋
教会

永信幼稚園

梶原 教師

きょうも、名古屋教会の永信幼稚園の保育室には20名のこどもたちの歓声がひびきわたっている。去る4月10日の再開園の日から早や3ヶ月。今、この職員室の椅子にすわって、頭の中をめぐすることは……。

去年の今ごろは、韓国教会の存在すら知らなかった私。韓国のこともただ地図の上でしか知らなかった私。

そんな私が今は永信幼稚園の教師という立場になり、「안녕하십니까?」というあいさつの言葉をおぼえている。

なぜ、私は今ここにこうしているのだろうか——こう考えるとき、そこに何か大きな大きな力を感じざるを得ない。そしてその大きな大きな力とはすなわち私にとって、神なのだ。そう感じるとき、保育に対する使命感と責任と、

それから意欲とが私の体中を駆けめぐり、いまにもあふれんばかりになる。そんな私にもう一人の私が、ちょっと照れくさそうに「がんばりなさい。」と言うのだ。

どんな仕事でもその苦勞や喜びは、本当にや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と言うが、"保育"も同様である。実際のと



ころ、学生時代に考えていたようなわけにはいかず、つまづきばかり多く、矛盾の中で苦しみまさに肉体と精神とのすりへらしという感じである。今まで黒板に向っていた私が今度は黒板を背にして立ったわけだ。そんな私が急に教師らしく出来るわけもない。相手が3才だからといって素手で彼等の前に立つほど私は大胆でもないし、そんな自信もない。であるがゆえに、私は"教育"という強いのか弱いかかわからないような『よろい』を身に着けて、彼等の前にこわごわ立つのである。肌と肌、魂と魂の触れ合い—これが教育における大きなポイント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しかし私などの魂とこどもの魂が触れ合ったりしたら…—という懸念が私の頭をよぎる。透明な水によごれた手をつけると、その手はきれいになっても反対に水はよごれてしまう。水ならば取りかえることもできようが、こどもの心は取りかえ不可能である。

結局この仕事のポイントが"自分自身との対決"であるということをもつて理解したというところがこの三ヶ月の成果と言えようか。しかし「こどもの教育は完全人間しかできない」などと考えていると実際、明日からでも辞めなければならないはめになってくる。けれども私は、こんなデコボコの自分を自覚しながらも、明日の朝もいつもと同じように幼稚園へ出かけ

てゆくだろう。——このところでもいつも私は自分の職業観というものがわからなくなるのだ。

私は、自分のことをかなり「動物」に近い人間だと思っている。(もちろん人間は動物なのであるが…) だからよく腹がたつし、悲しくなるしそして時にはまるで聖人君子のように大らかな気分にもなる。そして、もちろんこども達はそういう私を「純粹直感」というおそろしくよく見えるめがねで見ている。それで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する。

教育の原理、理論がどうであるにせよ、また保育のテクニックがどうであるにせよ、とにかく私は「人間・梶原先生」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日本人・梶原先生」であるよりも以前に。

関西地方青年会
定期総会

6月29日、午後4時から大阪北部教会で関西地方連合会青年会の1969年度、定期総会がもたれた。

関西の各教会青年会代表の代議員やオブザーバーなど約30名の参加の中で、昨年度の活動報告をしたのち、洪陽三会長から新年度の活動方針を出した。

役員改選を行なった結果、会長に呉重信兄がえられたなお新年度の役員は次の通り

| | |
|------|-----------|
| 会 長 | 呉重信(西成教会) |
| 副会長 | 金榮哲(大阪教会) |
| 書 記 | 金聖愛(大阪教会) |
| 副書記 | 姜達勳(布施教会) |
| 会 計 | 丁基隆(平野教会) |
| 副会計 | 李恵子(") |
| 伝道部 | 李恩揆(堺 教会) |
| 文化部 | 崔英淑(神戸教会) |
| 音楽部 | 朴定夫(堺 教会) |
| 出版部 | 李静淑(西成教会) |
| " 部員 | 孫成淑(北部教会) |
| " 部員 | 金英淑(北部教会) |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 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享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 曾根崎町 2-21

電話 大阪 (06) 341-2162

